



가나안 이야기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운

샬롬! 갈릴리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시지요? 3월의 끝자락에서 봄을 맞으며 새로운 시작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기도해주시신 덕분에 지난 2월 종교비자가 나왔고 3월 5일 한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입국했습니다. 지난 1년 5개월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마침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와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마음을 다해 기도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와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행정적인 일들과 갈릴리로의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비해주신 좋은 처소를 빠른 시일 내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갈릴리에서의 정착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가량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국을 떠나 이스라엘에서 보낸 지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 한국을 떠나 다시 이스라엘로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사실이 실감나듯 지난 몇 년간 짐을 쌓다 풀었다를 반복하다가 새롭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짐을 풀어 놓습니다. 이 또한 평생 정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에 언제든 떠나려하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사역자로 나서기 전 저의 모토로 삼았던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를 마음에 새기며 다짐해봅니다.

한국을 떠나오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무겁고 또 조금은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복귀해서 며칠 지나 곧바로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사실 마음을 다잡았다기 보다는 포기한 쪽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낯선 새로운 환경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자신들이 살았던 곳, 익숙한 곳에 와서 그런지 적응도 빠르게 해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첫 팀 4년과 두 번째 팀의 1년 7개월을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만큼 익숙한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이동한다는 의미는 마치 사역지를 새롭게 바꾸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고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약 2시간 정도 멀어졌고, 가까이서 함께 지내던 지인들과 동역자들과도 멀어져 홀로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리로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한인은 저희 가정 유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정착하는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에 좋은 집을 얻었고 또 일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변에 돕는 자들이 많아 행정적인 일들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집주인도 이웃들도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에 대해 호의적이고 또 친절합니다. 덕분에 마음 상하지 않고 빠르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포리아 일리트’라는 마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은 대략 1천명 정도이며 다양한 구성원들이 섞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도 적지 않게 살고 있고 있지만 동양인은 저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갈릴리에 와서 제가 처음으로 훈련받은 영역은 바로 ‘목수(木手)’입니다. 집을 구했지만 내부에 아무런 가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케아에 가서 필요한 가구들을 구입해 일일이 다 조립을 했습니다. 그 양(의자13개, 책상5개, 침대7개, 식탁2개, 서랍장6개, 그 외 3개)이 참 많아 전체 가구 조립하는데 약 10일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가구 조립이 다 끝난 이 시점에서든 생각은 **“이곳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첫 과정은 ‘목회’가 아니라 바로 ‘목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가구점에 취직해도 될 만큼의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 이스라엘을 떠나 잠시 폴란드로

저희가 살고 인는 집은 ‘코리엘 하우스’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곳’이란 뜻을 가집니다. 이 공간 안에서 예배와 교육과 나눔과 섬김이 그리고 각종 모임이 진행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시간 기도하며 준비했고 또 집 공간도 그에 맞게 배치되고 또 설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 안에서 이뤄질 모든 사역과 모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공간을 통해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며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의 공급과 사역적 연결과 동역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월 초가 되면 정식 종교비자를 받습니다. 비자를 받자마자 얼마 지나 곧바로 폴란드에 잠시 다녀와야 합니다. 미국 팀과 회의를 있는데 이번 모임은 회의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폴란드 역사 특히 홀로코스트 관련 현장 답사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저는 장년에 개인적으로 다녀와서 이번에는 회의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팀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배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 자신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보고 배운 것을 주변의 동역자들과도 잘 나누고 현장에도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폴란드 여행과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을 떠나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예루살렘) 도착



새로운 집주인과 이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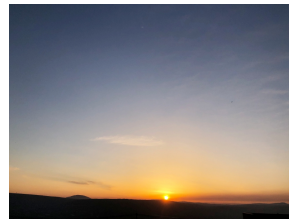
이케아 가구 구입



갈릴리 한인 목수



갈릴리 나들이



변화산 넘어 석양(집앞)

「 기도제목 」

Jewish Cluster Ministry Team

1. 유대인 사역팀(JCMT)와 베두윈 사역 팀이 현장과 현지인들을 복*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2. 갈릴리에서의 초기정착과 코리엘(Koriel)과 관련된 길이 열리고 동역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3. 4월 11-17일 폴란드 출장(*B 사업 관련 회의)을 통하여 미국 팀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도록
4. 가족들이 갈릴리에 잘 정착하고 아이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기뻐할 수 있도록
5. 아이들 홈스쿨과 관련하여 언어(영어,히브리어) 수업을 담당해줄 예비된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온)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주 소:

Rev. JAESUK JUNG

ת"ד 363, דרך השקד, פוריה עילית,
ד.ב. גליל תחתון, ישראל (ISRAEL)
מיקוד: 152800

- 이스라엘 연락처: +972 (0)58-6623513
- 한국(집)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o@gmail.com